**어린이들의 한 뼘 친구, GS칼텍스 ’마음톡톡’**

GS칼텍스(대표: 허진수 부회장)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슬로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GS칼텍스는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아동 심리·정서치유 ‘마음톡톡 사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마음톡톡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시작된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본격적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GS칼텍스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마음톡톡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은 건강한 또래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마음톡톡은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집단프로그램 본연의 기능에 미술, 연극, 무용동작,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통합예술집단치료를 제공한다.

지난 3년간 무기력, 공격성,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7,4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이 마음톡톡으로 치유의 기회를 가졌다.

마음톡톡은 치료의 질을 높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국내 예술치료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예술치료 매체의 통합적 활용과 집단치료를 기반으로 3년간 160시간 이상의 치료사 재교육과 수퍼비전 등을 통해 치료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마음톡톡은 심리치료의 기반을 다지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복지기관의 심리치료 인프라 구축, 효과성 조사 연구 개발, 예술치료 프로그램 공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마음톡톡은 2015년 2월 교육부와 MOU를 맺고 교육부의 전문적인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인 위(Wee)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전국 20개 위센터에서 대상아동 선정,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치료 지원체계의 발전, 사전사후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또한, 마음톡톡 원년부터 함께 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의 안정화된 치료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심리 치료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음톡톡 치유캠프는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펼쳐지는 국내 유일의 전문 치유 캠프이다. 2박 3일 동안 90분씩 총 8회기의 집중치료와 자연경관을 만끽하는 단체 활동이 진행된다. 미술과 연극, 음악과 무용동작, 음악과 미술 등 매체 간의 협업, 교수진의 현장 수퍼비전, 치료사와 운영진 간의 긴밀한 협력,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GS칼텍스 예울마루의 조화가 치유 효과를 높이고 있다.

마음톡톡 교실힐링은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들의 또래관계 강화와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된다. 한 반을 10여 명씩 3그룹으로 나누어 미술과 연극, 미술과 음악, 미술과 무용·동작 등 다른 매체의 치료사 2명이 한 팀이 되어 한 학기 동안 12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그 동안의 학교 기반 마음톡톡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탈북아동·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음톡톡을 확대하여 학교 및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마음톡톡 사업비 중 일부는 GS칼텍스 임직원들의 후원금과 회사 매칭그랜트를 통해 조성된다. GS칼텍스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마음톡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자동이체되는 마음톡톡 기부에 참여하며 어린이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하고 있다.